

1989

3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62-4181~5

사도행전

※ 3월호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새벽강단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문학으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몇 사람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룬 행전(Acts)이다. 중심은 사도들의 사상이나 교훈을 다루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사도들의 행전에 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만 고찰하지 않고 오고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구속사(Heilsgeschichte)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단순한 몇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 보는데 그치지 않고 전인류를 구원하는 지상의 기관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본래 교회의 제 모습을 찾아보아야 한다.

사도행전은 초대 그리스도교회의 성립과 조직, 발전상을 정확하게 보도한 원시 그리스도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의 신앙을 확고히 하려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으나(눅 1:4) 그 외에도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질서 문란, 황제에 대한 불충성)에 대한 변증(17:17이하, 18:13이하), 성령의 인격과 역사를 기록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1-12장은 베드로 행전이고 13-18장은 바울 행전이다.

3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2.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영력을 위하여
3. 예산의 60%를 밖으로 내어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4.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을 하루 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세계 목회자 재훈련을 위한)
5. 목회자 세미나가 4월 17일까지 은혜롭게 진행되어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새힘을 얻도록
6. 한국의 청소년들이 병들지 않도록 복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7.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되도록

1 (수) 믿음의 발전(1)

찬송 278 성경, 행 1 : 1-4, 13-14

「사도와 같이 모이사」(1 : 4)

교제의 발전 한동안 우리는 경제발전이라는 슬로건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60년대를 가득 채운 경제발전의 슬로건은 10.26사건 이후에는 정치 발전이라는 단어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도덕 발전도 중요하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발전의 첫 모습은 교제의 발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터워지고 성도간의 우정이 두터워집니다. 이것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개인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각하’라는 말을 빼고 있습니다. 누가와 각하사이에 신앙의 발전이 있어서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으니 믿음의 발전은 우정의 발전이요, 성도 교제의 발전이요,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앙 ‘사도와 같이 모이사’ (4) ‘같이’ (투게더네스, togetherness), ‘더불어’ ‘함께’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밤을 같이 지내셨습니다(눅 24 : 42, 43. 행 10 : 41).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더불어의 신앙’입니다. 약한 형제와 더불어 힘을 쓰고 더불어 수고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 발전의 모습입니다. 모임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형제간의 교제는 성령의 열매요 신앙의 발전은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 아직도 고독을 즐기고 계십니까? 고독은 더불어 사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외톨이가 되는 수도 있고 원치 않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구역으로 모임시다. 교회로 모임시다. 교회의 각 소그룹으로 모임시다. 찬양대로, 주교교사로, 전도회로, 교구모임으로, 봉사요원으로 각기 받은 은사대로 원하는 부서로 모임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발전이요 하나님과 성도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기도 주님! 오늘도 외로움을 떨치지 못해 몸부림칩니다. 이제 고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도들과 모여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목) 믿음의 발전(2)

찬송 235 성경, 행1:1-3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1:3)

메시지의 발전 초신자들에게는 흥미중심의 메시지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갈망합니다. 허황된 말이나 유치한 예화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역겨운 것 같으나 진리 앞에서 깊은 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듣기 거북한 말 같으나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 메시지의 발전입니다. 예수님은 해 받으신 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복음 누가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인종문제 해결이나 인류통합의 꿈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평등사상, 힌두교도들이 말하는 세계 평화나 파키스탄인이 말하는 경제부흥, 여성해방, 산아제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혁명을 주도하는 해방화 신학(배고픈 자에게 빵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물질번영, 생활의 편리, 질병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원칙, 합리주의 정신, 기복 신학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복음입니다(히2:9). 우리는 고난의 신학, 회개의 신학을 일러줘야 합니다. 회개운동으로 부터라야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전도의 열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hungry bird(목마른 새)와 같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려고 짹짹거리고 달려드는데 먹고싶어 못견딜 정도가 되었습니다.

******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역겹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도 쇼맨쉽과 같은 수준의 메시지를 달게 느끼십니까? 신앙의 발전은 메시지의 발전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 이 십자가의 도, 고난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못사람에게 전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쓴 악을 싫어하고 달콤한 시립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1:8)

행동의 발전 믿음의 발전은 피동에서 능동으로 행동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겨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자원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움에 쫓겨 숨어 있었읍니다(요 20:19, 26).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갔읍니다. 제자들의 행동하는 믿음의 발전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와 ‘증인’이라는 개념은 분리시킬 수 없읍니다.

증인 사도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증거를 계속 했읍니다. 전도자들은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론만을 가르치는 이론가도 아니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망상가도, 미래에 대한 공상만을 일삼는 공상가도 아닙니다. 이상가도 아니고 장래문제에 대한 연구가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실을 파악하고 믿고 증거하되 찾아다니면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읍니다. 가까운데서 먼데로 나아갔읍니다. 바울은 스페인과 로마에 까지 갔읍니다.

****** 아직도 매사에 수동적인 자세입니까. 좀더 능동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주님은 제사보다는 자원하는 심정을 원하십니다. 구역장에 이끌려 겨우 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매사에 임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아직도 뭔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신앙의 발전을 이룹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따라 나가서 증거하고, 밖에서 힘을 쓰듯 안에서도 힘을 쓰며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 신자, 자발적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구주예수를 증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앓은뱅이 신앙에서 뛰고 걷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토) 신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1)

찬송 431 성경, 행1:6-7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1:6)

문제가 아닌 것 우리가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도무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제삼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소망했던 회복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독립을 뜻하고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겨우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진정한 문제 제자들은 그들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할 국가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왕국의 설립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빼앗긴 국권의 회복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거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과 죄와 형벌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교인이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서 예수께 나오는 생활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와야 합니다. 율법적인 습관에서부터 복음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복사상에서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젊은이들이 데모를 한다고 걱정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정치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권능대신에 영적인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를 확인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문제 아닌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주일) 신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2)

찬송 349 성경, 행1 : 7-8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

잘못된 해결방법 믿음의 발전에 저해되는 두번째 요소는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하던 중 자살을 해 버렸습니다. 노동 쟁의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살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였다면 폭력이나 기적을 요청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의 사상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고 증거하게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접적인 대답은 왕국의 성격과 도래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잘못된 열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른 열쇠를 갖고 풀어야 하는데 잘못된 열쇠, 그 문과는 상관도 없는 열쇠로 열려고 하면 열려지지가 않을 뿐 아니라 자물통까지 망가뜨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바른 열쇠는 복음화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을 받으면 전쟁도 끝나고 억압도 끝나고 투쟁도 없어진다고 하는 원리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나 그것이 바로 키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지금 기적적으로 일어난다 해도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흥해는 민족 복음화를 통해서만 갈라집니다.

******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른 열쇠를 쥐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적관계로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의뢰하십시오,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엉크러진 실처럼 풀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바른 열쇠인 줄 믿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 (월) 신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3)

찬송 173 성경, 행 1:4-5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1:5)

능력의 장비 신앙발전의 세번째 저해 요소는 능력이 없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는 그 밭을 가는 연장과 연장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사냥꾼은 장비가 있어야 하고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려면 그 일을 수행할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욕과 열심만 가지고 일에 손을 대면 이미 실패를 눈 앞에 보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취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이요 잘못된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눅 24:49).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에만 매여 출달음칠 것이 아니라 가끔 머물러 능력을 재 충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성전, 평강의 도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료와 교회 사역의 시작을 위한 중심지가 됩니다. 성전으로 나오기를 게을리 맙시다.

※※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로막힌 흥해가 있습니까? 무작정 건너서는 안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으십시오. 주의 임재의 처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언가에게로, 또는 기도원으로만 가야 성령받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의 성전에서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출달음칠 것입니다.

기도 주여! 내게 권능이 없습니다. 흥해를 가를 능력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1:11)

핵심진리 기독교회에 여러가지 교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교리는 동정녀 탄생 교리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진리가 됩니다. 이 부활, 승천, 재림의 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 몇가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잠시 왔다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가 부활, 승천, 재림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해 줍니다. 제자들은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이 보이는 형태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가신 하늘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의로운 행동의 근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요 14:3) 이 말씀이 없었던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증언 하셨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것은 이 재림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질 때에 모든 현실 삶이 질서를 갖게 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성도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 입으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생활로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렇게도 순교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봉사하는구나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확고히 합시다. 자녀들에게 재림 교리를 분명히 가르칩시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삶을 삽시다.

기도 주여! 세상 사람들은 이 생으로 끝나므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지만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위해 우리의 걸음이 바르게 하시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행 1:13)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전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성도 120명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여기서 부터 출발이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마 18:20)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모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 교회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둘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밑에 가득히 모여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늘과 땅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강림 모이는 곳은 여기 저기 많습니다. 체육관, 극장, 공원, 계모임, 동창회 모임,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교회 모임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곳을 교회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고백이 나타납니다. 신앙고백은 신앙의 입장과 신학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나님앞에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모이는 것은 열심이 있으나 신앙고백이 부실하면 안됩니다. 세상에는 모이는 집단이 많으나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전수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을 바로 하면 행함이 따릅니다.

※※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는 것이 기쁘신지요,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 이신지요, 가족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시는지요.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히10:25)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령받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 고백을 나타냅니다.

기도 주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더디하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형제끼리 모여 주의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을 바른 생활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목) 너와 나

찬송 366 성경, 행1 : 13-15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1 : 14)

내적 일치 운동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받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데 제일 먼저 내적 일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더불어 하나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남 성도와 여성도 사이에, 예수님의 가족과 외인들 사이에, 새신자와 오래된 신자 사이에 일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서로 대립된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지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 운동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 일치가 일어날 뿐 아니라 일치된 그곳에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운동은 기도운동입니다. 교회운동은 기도운동입니다. 저들은 모여서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으니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하고 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기도입니다. 입만 열면 계속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중심의 기도요 계속적인 기도요 합심의 기도요 모여서 더불어 하는 기도입니다. 힘이 없는 기도는 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는 무력한 교회로 전락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실은 곧 교회의 기관실이며 조타실입니다. 교회의 열도와 전도는 그 교회 성도의 기도의 열도와 일치합니다. 생동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 먼저 자신 속에서 일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갈등과 좌절과 모순과 고통은 물러가고 평안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사랑과 존경으로 일치 되었습니까? 성령받은 증거입니다. 구역식구끼리, 교회의 모임에 일치 되어있습니까? 아직도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 속히 일치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 마음의 모든 거스리는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일치 운동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되는 운동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 (금) 아겔다마

찬송 372 성경, 행1 : 15 - 20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발이라」(1 : 9)

영광스러운 직분 열두 사도는 교회의 면류관을 결정할 열두 변이었고 열두 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받을 영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영광스러운 열두사도의 반열에 참여하여 이런 귀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재길로 간 가롯 유다의 행위는 매우 불명예스럽고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업적이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사람은 업적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가롯 유다의 업적은 예수 잡는 사람을 인도한 것입니다(16).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도가 오히려 예수를 잡으러 오는 악당들의 길 안내자로 둔갑을 하였으니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신의 죄를 범한 사람은 명예에 오욕이 오고 일에 고독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얻었다고 자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세상의 쾌락이 한꺼번에 잃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업적만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치욕적입니다. ‘아겔다마’는 ‘피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행1 : 18, 마27 : 5)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유다의 높은 소명과 거기에 따른 그의 타락의 심각성이 우리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 교회의 수만 채우고 있습니까. 마침내는 불법의 자녀로 하나님을 배신할까 염려됩니다. 이루고 있는 업적이 명예스러운 것입니까?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존경을 받든지 오명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직무, 아내의 직무, 부모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유산을 남기려 하지 말고 깨끗한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가 됩시다. 관직을 빙자하여 악을 행한다면 아겔다마 밖에 남길 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명과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항상 애쓰고 수고합니다.

기도 주님 밖에서 형통한 자 부러워말게 하시고 주의 주신 직분을 귀한 줄 알게 하옵소서. 남겨 줄 유산은 깨끗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아겔다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토) 구원 그리고 증거

찬송 368 성경, 행1 : 21 - 22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행1 : 22하)

직분 승계 가룟 유다가 제 구실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하심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라야 합니다(1 : 22상). 또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라야 합니다(1 : 22하).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눈으로 보고 따라다닌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군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봉사의 직무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자가 아니라 차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니, 죄로 죽은 자신이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하니 그 은혜에 너무 감사 감격해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사과나무 사과 안맺는다고 두들겨 패면 나무만 상합니다. 그러나 거름을 잘주고 보호해 주면 영양을 섭취해서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한 자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도 바치고 여생도 바치고 지식, 시간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봉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부활을 증거케 하심입니다.

** 내가 안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손 들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구석 구석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강대상 만이라도, 성전 앞뜰 만이라도 청소할 마음은 없습니까. 화장실 한칸만이라도 청소해 봅시다. 식당에서 접시 한개라도 닦아 봅시다. 24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맙시다.

기도 저희들을 주의 일군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홀히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주일) 민주적 선택

찬송 510 성경, 행 1 : 23 - 26

「제비 뽑아 맞디아를 얻으니」(1 : 26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길로 간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택하는데 열한 사도가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120문도가 다 모여서 함께 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수근수근도 필요없고 원망도 시비도 소용없고 하라시는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질서유지 120문도는 두 사람을 먼저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행 1 : 24) 여호와께(잠 16 : 33) 있는 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추천된 두 사람의 기질도 성품도 능력도 충성도 아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깊이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이미 택하고 계시니 사도의 반열에 세울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투표에 임했습니다(26). 교회는 일을 할 때 질서있게 해야 합니다. 질서는 생명입니다.

※※ 맞디아는 여기에 나타나기까지는 이름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숨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가운데 택해서 뽑아 엄청난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애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백사를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까. 구역에 질서가 있습니까. 맞디아처럼 숨어서 봉사하되 질서를 지키며 주의 종들의 지도에 순종합시다.

기도 이름도 빛도 없던 부족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질서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월) 성령님이 오신 목적(1)

찬송 73 성경, 행2:1-4

「오순절날이 이르매」(2:1상)

성령강림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 하고 성령께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을 성령 강림이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바로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도 안식후 첫날(주일)이었고 성령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제도가 폐지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강림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므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서 ‘파라’는 ‘곁에’ ‘옆에’란 뜻이고 ‘클레토스’란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내옆에서 계시어서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 입으로는 성령님 부르짖으면서, 자기만이 진리가라고 고집부리며 고아처럼 홀로 다니는 독선주의자나 아집가는 아닌지요. 오늘도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외롭고 육적으로 고독합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논할 분이신 파라클레토스가 계신 것을 행복해 합시다.

기도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처럼 사는 불쌍한 인생같이 보혜사 성령님과 계시는데도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화) 성령님이 오신 목적(2)

찬송 179 성경, 행2 : 1 - 4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2 : 4상)

몽학 선생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항상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진리를 떠난 인생은 눈먼 소경과 같아서 오리무중에 빠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자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몽학선생(가정교사)과 같이 어려운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묻기도 전에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논리가 뛰어난 분이라도 깨달을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믿도록 도와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깨우치신 다음에 자기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요16 : 13-14).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분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탐구도 없이 지도자에 대한 불만, 원망만 쏟아놓는 사람은 성령님의 지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없는 사람의 특징은 제일 먼저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치 않으니까 외롭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까 고집부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고집과 확신은 구별해야 합니다. 고집은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고 확신은 바른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집은 죄 가운데 무서운 죄입니다. 고집은 성령에 대항하는 죄입니다.

**** 이 땅에는 성령을 빙자해서 인기작전을 펴는 사람도 많습니다. 출세주의자, 영웅주의자도 많습니다. 성령을 전매 특허나 받은 것처럼 내게 와야 나누어 준다고 하는 종교 부로커도 많습니다. 성령을 우롱해서도 안되고 성령을 슬프게 해서도 안됩니다. 성령의 방법과 목적이 나의 방법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온통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온 세상이 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 (수) 바람같이 허같이

찬송 332 성경, 행2 : 2-3

「불의 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2 : 3)

힘, 힘 성령이 오시는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로 오신다는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여기 사용된 '소리' (에코) 는 바다의 울부짖는 소리를 묘사한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위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또한 무궁무진하신 힘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강퍽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는 일도 하실 수가 있고 바로의 마음을 강퍽하게도 하십니다.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도 해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화평케 하십니다.

열, 열 성령님은 불의 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소리' 와 '불의 허 같은 것' 은 시내산의 현상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실 때 화염속에서 임하셨습니다(출19 : 18). 에스겔은 타오르는 숯불 속에서 그의 사명을 확고히 했습니다(겔1 : 13). 이사야도 숯불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였습니다(사6 : 7).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순물을 분리해서 소멸시키고 태우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허는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십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가 성령의 말씀이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 오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언가(성경무당) 를 찾아 가십니까?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께 의지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갈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앞에 우리의 불순물을 고백하십니다. 태우고 소멸하여 정결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찾습니다.

기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라 기도과 말씀에 입각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2 : 8)

단번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은 홀연히 갑자기 왔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단회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딸구유에 한 번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단번에 오셨습니다. 예수 부활이 정신적 해석이 아닌 것처럼 성령강림도 정신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처럼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이 재차 3 차 강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을 새롭게 사도행전 2 장의 방언은 흠어진 말의 통합을 말합니다. 14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제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바벨탑사건의 저주로 말이 흠어져서 통하지가 않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의 유니티(Unity)를 이룬 것입니다. 끊어지고 절단되었던 말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말이 흠어진 것은 저주의 싸인인데 말이 다시 연합이 되어서 깨달게 되었다는 것은 저주가 물러갔다는 싸인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회복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가 방언입니다.

****** 저주가 물러간 표시로 꼭 우리가 방언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은 구원받은 표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새 방언을 해야 합니다. 악담만 하고 욕지거리만 하던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남을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이 변하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 사랑, 마구 좋은 말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것이 새 방언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돈, 명예, 지위, 권세 굉장히 여기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참을 쫓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 오늘도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할 새 방언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천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 (금) 어찌할꼬

찬송 421 성경, 행2 : 22 -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2 : 37)

찢린 마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찢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찢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몰려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질문을 합니다. '어찌할꼬'라는 질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크고 작은 문제를 포함한 절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힘써도 보았고 참아도 보았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총동원해서 노력도 해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어찌해야 좋은가 하는 탄식이 서려 있습니다.

케리그마 이들에게 큰 찢림을 준 베드로의 증거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22)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23).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시었다(24-32).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33-35).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다(36). 케리그마(설교)는 이 다섯가지를 공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대로 마구 말하는 것도 아니고(그것은 연설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베드로는 16-21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고 25-28에는 시16편을 인용했고 34-35 절에는 시110편 1 절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행5 : 32).

* *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질병, 이웃과의 교제, 심성의 문제, 교회문제, 국가적 문제, 국제적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찌할꼬' 물어보십시오. 문제를 갖고 혼자 고민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합니다(시77 : 3).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잠18 : 14). 하나님께 '어찌할꼬' 자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 말씀을 들어도 찢림이 없사오니 이거야 말로 '어찌할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찢으시어 주의 말씀에 찢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 (토) 근본적인 해결(1)

찬송 330 성경, 행2 : 37 - 38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2 : 38)

먼저 할 일 ‘어찌할꼬’ 부르짖는 그들의 호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몇가지로 엄청난 근본적인 해결을 줍니다. 먼저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별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도 별가지의 방법으로 해 보아도 회개치 않은 자의 기도소리는 듣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전 간에 그 해결의 방법은 회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메타노이아)는 뒤집다는 뜻도 있습니다. 뒤집히면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는 하는데 ‘개’가 없으면 안됩니다. 깨닫기는 하는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별된 자 회개한 다음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별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인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세례’(바티스마)는 외형적 행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내적 의미를 더 추구합니다. 세례의 외적 행위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명하는 자기결단의 표시이므로 세례는 중요하며 또한 회심하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싸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 각각 회개하여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형제를 대하는 태도도, 사회를 보는 눈도, 교회를 봉사하는 심정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기이전을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양심도 예수님의 것으로 동기이전을 합니다. 이 몸, 이 영혼도 주님의 것으로 이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기도 ‘어찌할꼬’는 하루에도 수십번 되뇌어도 진정한 돌이킴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 (주일) 근본적인 해결(2)

찬송 177 성경, 행2 : 38 - 41

「죄사함을 얻으라 ... 성령을 ... 받으리니」(2 : 38 하)

문둥병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틈이 생기면 교통이 두절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조금도 흰 부분이 없습니다. 원해서 그러기도 하고 원치 않아서 그러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고 찢길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하고 냄새나고 견딜 수 없는 문둥병자같은 내 모습, 이 모습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비참한 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성령받지 못한 자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전이든지 마귀의 전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주장을 못하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자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지켜 주시거니와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신앙성장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받으면 악령과 싸워 이길 수 있으나 성령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성령받으면 지혜도 용기도 힘도 권능도 은혜도 모든 것을 다 힘입고 주님께 효과적인 봉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받지 못하면 주님을 향하여 한발자욱도 떼지 못합니다.

******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칼로 죽이지도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비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한 살인죄, 탐심품은 절도죄, 이웃탐낸 토색죄, 음욕품은 간음죄, 다 내어놓고 도말을 받으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성령받아서 이 자유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예수의 이름을 온누리에 심으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복을 받으십시오.

기도 아버지여, 견딜 수 없는 죄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옵시고 성결하고 정숙하여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 (월) 생동하는 교회(1)

찬송 197 성경, 행2 : 42 - 47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2 : 43)

움직이는 교회 초대교회는 분명히 살아 생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죽은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능력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회생할 수 없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길은 기적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연기적을 통하여 자연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치유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주 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사실이 가능한 사실로 변하게 합니다. 불치병 환자가 새 힘을 얻고 무신론자, 캄패, 사기꾼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도의 역사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능을 받습니다(42). 성령받으면 죄를 다 물리치고 깨끗한 양심, 깨끗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성령이 응답을 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성령받고 회개하여 능력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같은 삶을 사는 것이 성령받은 교회요 성령받은 개인이요 성령받은 단체입니다.

** 매사에 생동력 있어 움직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나타내고 게을러 안주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속에서 영혼이 날마다 치유함을 받고 가치관이 변하고 무익했던 것이 유익해지고 유익했던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생활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기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처지고 무기력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생동력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므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 (화) 생동하는 교회 (2)

찬송 373 성경, 행2 : 42 47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2 : 44하)

사랑의 역사 초대교회 신자들은 권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자진해서 모인 것이고 자기들의 것을 피차에 나누어 주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누어주는 삶을 삽니다. 체격이 커지면 많이 먹어야 하니까 교회의 98%의 예산을 경비로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죽습니다. 현금 총액의 60% 이상을 밖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요 나누주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오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진해서 나누어 주는 역사는 성령받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툼의 관계가 없고 사랑의 표식이 없다면 거짓된 사랑입니다. 목자되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더니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도 성령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어 냉냉합니다. 사랑의 역사만 일어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천대받는 자 위로받는 사랑의 사도가 됩시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의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에게 내의 한벌이라도 전해 봅시다. 청소부에게 운동화 한켠레라도 사 드리고 신문배달 소년에게 따뜻한 차 한잔이라도 대접합시다.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맙시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1년에 한차례라도 정성을 쏟아봅시다. 윤락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거리의 깡패들이 천사로 변화되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날마다 읊조리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식어져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2 : 46)

먹는 곳에 나는 정 성령의 역사는 또 교제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지혜로왔습니다. 집사의 하는 일은 제직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구역에서 돌보고 힘겨우면 교회에 연락을 해서 교회가 돕도록 해야 합니다. 부잣집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감사, 찬양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 3천명씩 회개를 하고 성도들은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홍해작전을 시작하니 다른 교회로 이 운동이 번져 갔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필리핀에도 동남아에도 서구에도 이 작전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기도운동이 터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편하고 나라가 편하게 됩니다. 나라가 편하면 세계가 편하고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만 한다면 감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번 불평을 입에서 자꾸 터치면 그것은 원망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의 입에서는 불평 원망 대신에 찬양이 쏟아집니다.

****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나요? 일년 열두달 지나도록 인사 한번 없이 지내나요? 구역이 모이면 즐겁습니까. 집에서 잠수시던 것 한 점씩 썩이라도 갖고 모임시다. 그러면 부패상 치림이 됩니다. 구역 예배의 특징은 교제입니다. 모임이면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사와 찬양을 채웁시다. 이웃에서 구역모임을 보고 부러워하게 합시다. 그들도 참여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하나된 저희들이 형제와 하나되지 못하고 늘 반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 (목) 믿음의 진보(1)

찬송 530 성경, 행3:1-6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3:6하)

기도의 향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그중 처음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향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세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성전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보고 동전 몇닢을 던져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하루 기도하고 이를 기도하고 기도의 의미를 진실되게 깨닫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기도의 향상이라 합니다. 열심있는 기도는 반드시 실제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앉은뱅이를 방치한 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의 향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봉사의 향상 교회에서 봉사는 기도와 함께 매우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이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물질이전에 마음을 주는 봉사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불쌍한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어야 하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봉사의 정신입니다. 손을 잡아주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도들의 마음은 단순하게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정신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있어야 할 필요(need)를 진정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향상입니다.

**** 진정한 기도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 손을 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어느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밀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전에 하지 않던 봉사의 마음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위해 응답되기까지 기도하세요.

기도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선을 추구할 마음이 없으므로 마음까지 냉담하오니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마음도 손도 발도 다 동원되어 하 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3:8)

피동에서 능동으로 믿음의 진보는 피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향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불쌍한 앓은뱅이는 남의 등에 업히어서 겨우 성전 미문까지 출근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성전까지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년 동안 해 왔지만 아직도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사람은 앓은뱅이처럼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앞에 달려나와 내힘으로 뛰고 내힘으로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구걸에서 봉사로 구걸하던 앓은뱅이는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조금 준다고 원망하고 시비만 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남의 무거운 짐 노릇이나 하고 있었는데 발목에 힘을 얻고 별떡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남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이나 하는 불쌍한 거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쓰는 봉사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걸할 바에야 조금밖에 갖지 않은 인간에게 하지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며 하나님앞에 올 바에야 성전문에서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날 바에야 사람만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살 바에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고 자신은 깨어져야 합니다.

※※ 교회의 일원, 교사의 일원, 구역원의 일원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계시는지요. 교역자들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형편은 아닌지요? 자동차를 끌고가면 힘이들지만 시동을 걸고 기아만 스위치하면 힘들이지 않고 갑니다. 그렇게 신나게 달려갈 자동차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회초리로 아무리 때려도 밀려가지도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발동이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발동을 걸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차츰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일어나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3:12)

주변적인 것 유쾌한 삶이 생을 유연하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심령을 즐겁게 하여 생명을 연장케 하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입니다. 이러한 유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몇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있던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사람의 생명은 우습게 알면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렇게 보잘것도 없는 옷조각이나 나누어 가지려고 십자가 밑에서 다투었습니다. 인생들이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기적 자체만을 중하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 무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무뎠히 애씁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용돈을 주는 아버지는 뒷전으로 밀어부치고 아버지의 호주머니 지갑만 노리는 불한당 같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요즈음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밀어부치고 그렇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련함을 집어던져야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 오늘도 기적만을 추구하고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좋아하면서 은혜의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축복은 사모하면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얼마나 얕은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에 대한 순종이 빠르다고 하지만 마귀에 대한 순종보다 얼마나 느린지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열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냉담한 것도 묵상하십시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유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귀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같이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 (주일) 유쾌하게 되는 길 (2)

찬송 523 성경, 행 3 : 12-13상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13 : 13상)

영광 찬탈 유쾌하게 되는 두번째 길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말고 남의 공적을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지 않은 공을 마치 자기가 세운 공처럼 자랑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잡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양심이 괴로워서 유쾌한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영웅대접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줄 아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당연히 해명할 것을 해명하므로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읍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요 10 : 32),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 12 : 49),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요 17 : 26).

어리석은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와 같아지려다가 죄를 이 땅에 잉태케 하였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아서도 안되고 빼앗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일생동안 피흘려, 땀흘려 쌓아 놓은 업적을 하루 아침에 자기의 것으로 돌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강도요 도적입니다. 공은 쌓은 사람에게 돌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마음에 유쾌함이 있습니다.

****** 공을 쌓기를 원하지만 쌓지 못해 때로는 남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은 업적보다는 정직을 더욱 귀중히 보십니다. 때물은 업적보다는 정직한 빈손을 하나님이 더욱 어여뻐 보실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직하게 지킬 줄 아는 자가 됩시다. 마음에 유쾌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 모든 유혹 특별히 뱀내고자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른 사람의 공을 치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과 친절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 (월) 유쾌하게 되는 길 (3)

찬송 190 성경, 행 3 : 13 하-14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부인하였으니」(행 3 : 13 하)

빌라도 보다 못한 양심 세번째 유쾌하게 되는 길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심한 그 결심까지 무너지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항거하고 마침내 빼앗아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빌라도의 양심보다 못한 마비된 양심입니다. 이것을 회개치 않는 한 그들의 마음에 유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인 빌라도의 양심보다 못해서야 무엇하겠습니까. 배운자가 못 배운자 보다 더 무지한 짓을 하고, 기성세대가 어린아이보다 더 철없는 노릇을 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더 비양심적입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더 불신앙적인 처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만이라도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땅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하면 나라가 교회까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나라가 교회를 믿을 수 없게 되면 그 나라는 보따리 짝 나라입니다. 세금 포탈하고 땅 싸게 샀다고 하나님이 복주셨다고 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양심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만이라도 바른 양심을 가졌더라면 사회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더니 세월이 바뀌니까 돌을 제각기 던지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 남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한탕주의, 모리배 노릇, 다른 사람 가슴아프게 번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간판, 권위와 자리만 주장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지해서 범죄한 유대인의 그 길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100만원에 사다가 300만원에 팔면 그게 바로 모리배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아는 체하고 아는 일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기도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강한 자 앞에 비굴하지도 말게 하옵시고, 약한 자 앞에 자세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 (화)마귀가 싫어하는 것(1)

찬송 151 성경, 행 4 : 1-4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4 : 2)

훼방자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협조자가 아니라 훼방자입니다. 훼방할 뿐 아니라 적대까지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로마 관리들, 사회의 지도급에 있던 사두개인들을 자기의 앞잡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의 첫 사업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일입니다. 마귀는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자기에게 순종케 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특히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를 못 전하게 사도들을 가두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가리워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게 하고 공명심과 이기심에 호소하여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도 못하게 하며 봉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심을 조장하여 그만두게 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우리를 방해(훼방) 합니다.

※※ 수요일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는 출석하기가 싫으십니까. 회개의 설교가 듣기 싫으십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만 좋아하십니까. 천천히 회개하자고 토설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의 일하는 것도 싫고 나도 하기 싫습니까. 마귀가 지금 마음에 방석을 틀고 앉아 있습니다. 몰아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몰아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보다 즐겁지 않고 찬송에 기쁨이 없사오니 주여 회복하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 (수) 마귀가 싫어하는 것(2)

찬송 334 성경, 행 4:1-4

「저희를 잡으매...가두었으나」(4:3)

대립과 반목 마귀는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을 시켜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일찌기 아담과 하와를 죄를 핑계하고 전가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 불화하게 하였습니다. 성도간에 불화한 것은 언제든지 사탄의 장난입니다. 형제간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모두 사탄의 짓입니다.

영적 갱신 도적은 불난집을 좋아합니다. 불난 집에서 시끄럽고 혼란한 틈에 도적질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노립니다. 불화와 대립과 반목과 단절과 고립을 형성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간의 교제가 있으므로 복음전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바깥으로 새로워지고 자신이 변화된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화합, 국토통일, 사상적인 통일, 정신적인 통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지금 누구와 단절되고 있습니까(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습니까(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마귀의 계를 눈치채십시오. 교역자들이 공연히 미워지고 싫어집니까? 구역장이 아니꼽고 알뜰습니까? 부부간에는 화목하십니까. 이 모든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감지하십시오. 마귀가 춤추고 잔치하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반목했던 모두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세요. 마귀는 울고 하나님은 웃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마귀가 꾀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적가 패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날 것입니다(약 4:7-8).

기도 일흔번째 할곱번이라도 용서하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용서치 못함으로 오는 상도간의 단절을 주께서 이어 주시고 녹아져서 해나되, 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4 : 10상)

잘못된 지식 우리는 종종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것을 잘 아는 것 같으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통달할 수는 없지만 적게 알더라도 알 바에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와 착각, 상상을 통한 잘못된 인식과 추측은 모두가 다 잘못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죄들입니다. 회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독약을 먹여 죽게 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신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출처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앓은뱅이를 일으켰느냐고 심문하였습니다. 그들은 권능과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때문이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증과 변명은 다릅니다. 변명은 자기를 위한 것이요 변증은 공적인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목소리가 변증이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고 변증한 것이 기독교의 고백이었고 교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과 미래의 교회가 외쳐야 할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무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正)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이 제시하는 지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에서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기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통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주님에 대한 변증으로 우리의 지식이 확고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4 : 20)

최초의 핍박 사도들의 투옥 사건은 기독교회 역사상 최초의 핍박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도들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선권 문제 사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순종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19). 사령관의 명령순종에 유보가 있으면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यो 마땅히 할 일인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도들은 사실 앞에 겸손하고 진리 앞에 솔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20).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앓은뱅이가 회복이 되어 뛰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더 부인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승리하고 초대교회가 이기려면 겸손과, 진리 앞에 솔직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적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전을 당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허가 아닌 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은 곧 힘을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실력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곧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진리를 말할 때 용감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12).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습니다(19).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소명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습니다(20).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고 듣게 하셨습니까? 말하게 함입니다.

** 냉수를 마시고 이를 쭈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도 게트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선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만 가지고는 적과 싸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소유합시다. 그리고 입을 열고 가슴을 열어 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증거하고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내 생애 전부를 바쳐 이 복음에 충성합시다.

기도 아버지시여! 탁상 공론으로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겸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되 진리의 겸을 가지고 나가서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1 (수) 믿음의 발전(1)
- 2 (목) 믿음의 발전(2)
- 3 (금) 믿음의 발전(3)
- 4 (토) 신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1)
- 5 (주일) 신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2)
- 6 (월) 신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3)
- 7 (화) 다시 오리라
- 8 (수) 교회의 산실
- 9 (목) 너와 나
- 10 (금) 아겔다마
- 11 (토) 구원 그리고 증거
- 12 (주일) 민주적 선택
- 13 (월) 성령님이 오신 목적(1)
- 14 (화) 성령님이 오신 목적(2)
- 15 (수) 바람같이 허같이
- 16 (목) 새로운 가치관
- 17 (금) 어찌할꼬
- 18 (토) 근본적인 해결(1)
- 19 (주일) 근본적인 해결(2)
- 20 (월) 생동하는 교회(1)
- 21 (화) 생동하는 교회(2)
- 22 (수) 생동하는 교회(3)
- 23 (목) 믿음의 진보(1)
- 24 (금) 믿음의 진보(2)
- 25 (토) 유쾌하게 되는 길(1)
- 26 (주일) 유쾌하게 되는 길(2)
- 27 (월) 유쾌하게 되는 길(3)
- 28 (화) 마귀가 싫어하는 것(1)
- 29 (수) 마귀가 싫어하는 것(2)
- 30 (목) 바로 알 바
- 31 (금) 승리하는 비결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만나 • 1989년 3월 호 • 등록번호 / 제 9-110호(1977. 10. 21)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4181-5)